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이 작가와 독자, 역사의 행간에 대한 진지한 정담

이 지면은 일정한 분야에서의 꾸준한 저술과 성취를 통해 나름의 열정적인 독자군(소위 마니아라고 부르는)을 확보하고 있는 저자와 그의 작품을 애독하는 독자의 만남을 통해 책 바깥의 생산적인 커뮤니티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저자의 저술세계를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마련된 코너이다.

《한 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의 저자로 잘 알려진 박영규 씨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역사교양 전문작가이다. 그는 자신을 역사학자라고 칭하지 않고 '작가'라고 분명히 밝힌다. 작가의 외연적 의미가 좁은 한국과는 달리 서구에서는 '작가'라는 말이 아우르는 의미의 외연이 무척 넓다.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교양과 지식을 갖춘 이들이 '작가'라는 이름으로 활발히 집필활동을 펼치

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역사 쪽의 가일스 밀턴이나 인문 쪽의 데이바 소벨, 미술 쪽의 모니카 봄 두첸이나 웬디 수너 같은 사람들 말이다.

박영규 씨는 최근 《조선의 왕실과 외척》이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은 제목이 가리키는 것처럼 통사적 입장에서 역사를 서술하던 기존의 작업과는 달리, 특정한 '계층의 역사'를 서술했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의미가 있는 책이다. 이날 작업실로 박영규 씨를 찾은 독자는 김영순 씨, 전필숙 씨, 윤영숙 씨, 조용우 씨 등 모두 네 명. 작가의 일산 작업실에서 박영규 씨를 만난 이들의 화제는 자연스럽게 이 책 이야기로부터 풀려나왔다.

전 필 숙 독 자 한 가계의 족보를 만드는 일도 품이 많이 드는





일인데 27대 조선 왕실의 족보를 이렇게 살려내신 것을 보면 참 대단한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을 여러 권 내셨는데 이번 신간에 담긴 의의라면?

박 영 규 족보를 살려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빠뜨린 부분도 있어요. 두 살 이전에 죽은 왕족들은 정사에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요. 추측이겠지만 장애를 갖고 태어난 이들도 왕실의 사가들이 아마 배제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은 제가 하기 전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진작에 했어야 하는 일이에요. 저는 왕조사는 당시의 가치관에 입각해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이유에서 왕조사는 씨족의 역사가 중요하죠. 어설픈 민중서관으로는 조선의 역사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윤 영 숙 독자 이 책을 쓰시면서 전생담께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어떤 집인가요? 저도 기존의 통사적 관점에서 쓰여진 책과는 다르게 읽히던데요.

박 영 규 저는 지금까지 통사를 많이 써왔어요. 지금까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지나치게 지엽적이고 허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변방의 약소국이었던 우리나라 역사는 열등의식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 증빙이 되지 않은 허구적인 역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역사는 '통사'라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통사를 서술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좀더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계층의 역사'를 쓸 생각이예요. 이번에 나온 책도 그런 작업의 일환인데, 앞으로는 중인계급의 역사 같은 것을 쓸 수도 있겠지요.

조 용 우 독자 좀 단순한 질문인데 왕의 묘호에서 종실과 조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책에서는 서자 출신 왕에게 조가 붙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박 영 규 조선왕조실록에는 일반적으로 묘호에 조가 붙는

왕은 업적이 많은 왕이고, 종이 붙는 왕은 덕이 많은 왕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하지만 조와 종을 가리는 작업이 단순하지는 않아요. 그 과정에서 엄청난 정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었거든요. 책에서 조가 붙는 왕이 서자 출신이라고 한 것은 저의 주장인데, 세조를 제외한 왕이 서자 출신이라는 사실을 염두하고 문제제기를 한 것이었어요.

김 영 순 독자 조선 왕들의 묘를 보면 왕비와 함께 합장이 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건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 것인가요?

박 영 규 그것에는 여러 경우가 있어요. 우선 왕이 특별한 유언을 남긴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왕비와 오래 살았는가를 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후대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정해질 수도 있는 것이구요. 정치적 상황이 개입될 때가 있어요. 왕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정치의 판도가 수없이 바뀌었던 조선왕실의 특징이죠.

윤 영 숙 독자 꽤 무거운 책인데요. 집필기간은 얼마나 걸리셨어요?

박 영 규 사실 《한 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을 쓰기 위해 자료를 수집할 때부터 이 책도 함께 구상되었다고 볼 수 있죠. 통사를 먼저 쓰기 위해서 이 책은 잠시 미뤄두었던 겁니다.

조 용 우 독자 방대한 정보들이 남지 있는데 자료들은 어떻게 수집하시나요?

박 영 규 실록을 기본으로 참고하죠. 우리나라의 실록도 보았지만 저는 이조실록이라는 이름으로 400권이 나온 북한 쪽의 실록을 참고하기도 했어요. 개인적으로 북한이 편찬한 실록이 훨씬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선왕조선원록》, 왕들의 일기에 해당하는 《일성록》, 그리고 왕비의 가계를 적어놓은 《왕비세보》 《연려실기술》 등을 수없이 뒤졌죠. 수원에 있는 한국정신문화원 장서각이나 서울대 규장각도 자주 찾았죠.



— 윤영숙 독자 —

— 김영순 독자 —



김영순 독자 글을 쓰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박영규 교양서라고는 하지만 역사를 서술하는 책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보의 정확성이 중요해요. 이를테면 왕족의 이름, 생년과 몰년, 그리고 직위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확인하는 작업이 참 힘들습니다. 사실 책으로 묶여 나오면 독자들은 이런 부분을 사소하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는데 역사서를 쓰는 사람으로서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전필숙 독자 저는 지금 해주산성에서 관광가이드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의 책이 참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선생님은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역사를 곧잘 비교해서 바라보시는데요.

박영규 역사는 현실을 바라보는 거울 같은 거라고 하잖아요. 제가 볼 때 현재 노무현 정부는 조선왕조로 치면 정조조와 흡사해요. 두 사람 다 개혁세력을 등에 업고 권력을 잡았으니까요. 그리고 보수세력의 견제를 받고 있는 것과 노골적으로 개혁세력 편만 들 수 없는 딜레마도 똑같아요. 정조도 개혁세력만 중용하면 사림의 반발이 거세지고 성리학의 질서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알았던 거지요.

윤영숙 독자 정통 역사학자들의 작업과 선생님의 작업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박영규 쉬운 것과 경박한 것은 구별되어야 해요. 나는 내 글쓰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를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 같은 역사전문 작가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해요. 학자들은 사실 미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나는 통사를 공부하고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역사를 설명하죠. 최근 이덕일 교수의 작업처럼 대중적인 글쓰기를 시도하는 학자들이 나오는 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

각해요. 독자들은 틀에 박힌 논문의 문투에는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역사를 어떻게 독자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편집상의 기술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

김영순 독자 선생님 작업에 대한 정통 사학계의 평가는 어떤 편인가요?

박영규 학자와 나는 영역이 다르고 서로 상보적으로 도움을 주는 관계입니다. 저는 역사학자들의 논문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학자들은 제 작업을 통해 연구의 주제를 설정하기도 하니까요. 내 생각으로는 학계도 저의 작업을 반길 것이라고 생각해요. 교양의 주제로서 역사의 지평을 넓혔기 때문이지요. 나는 역사책의 종류가 지금보다 훨씬 다양해져서 책의 스펙트럼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늘 새로운 주제를 정해서 도전을 합니다.

열정적인 독자와 그런 독자를 가진 행복한 작가의 대화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됐다. 독자들은 박영규 씨의 책에서 삶과 역사를 다시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고 입을 모은다. 자칫 어렵고 까다롭다고 생각하기 쉬운 역사를 알기 쉽고 상세하게 설명해 준다는 것이 박영규 씨 책의 매력이라고. 박영규 씨 역시 독자들의 조건과 비판에서 많은 도움을 얻는다고 말한다. 최근 100쇄를 넘긴 《한 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의 오류 수정에는 독자들이 제공해 준 정보가 많이 반영되었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박영규 씨는 책이란 출간된 이후 독자들에게 임혀지면서 다시 한 번 '진짜' 책으로 태어나는 것 같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기도 했다.

책 집필 과정에서 탈진해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극심한 산고를 겪어야 했다는 작가는 독자와의 대화에서 그간 누적됐던 피로를 말끔히 푸는 듯한 모습이었다. **☞**

취재 김도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조용우 독자

전필숙 독자